

번역의 가치는 번역가 자신이 지켜가야 할 몫 번역가, 그는 누구인가?

글_강주현(번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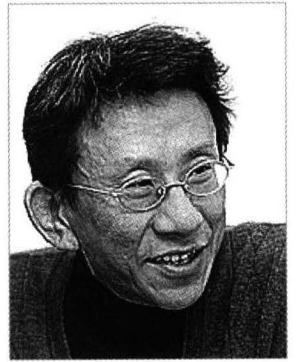
지난 12월 중순, 문자가 왔다고 핸드폰이 뻑뻑거렸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절친하게 지낸 친구의 부친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다. 다음날 저녁쯤 상가에 도착했다. 요즘에는 상가집이 동창 회장으로 변하듯이 옛 친구들의 얼굴을 보니 반가웠다. 현대 모 대학의 교수로 있는 친구가 느닷없이 내게 다가오더니 “네가 번역한 책 읽었다. 번역하느라 고생 많지?”라고 물었다. 순간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만약 기업체에 다니는 친구에게 “회사에 다니느라 고생 많지?”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대학 교수인 그 친구에게 “애들 가르치고 연구하느라 고생 많지?”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물론 대부분이 힘들다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할 수 없다고 대답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다. 그 친구는 역시 대학 교수인 다른 친구에게 “연구하느라 고생 많지?”라고 묻지 않았고, 기업에 다니는 친구에게도 “회사에 다니느라 고생 많지?”라고 묻지 않았다. 유독 내게만 “번역하느라 고생 많지?”라고 물었다.

번역가는 잡급 노동자

소위 전문 번역가라는 내게 던져진 이 질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친구가 나를 위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물은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그 친구에게만 들은 것은 아니다. 자주는 아니어도 이따금 듣는다. 아주 오랜만에 친구, 혹은 낯선 사람도 내가 번역을 해서 먹고 산다고 하면 거의 여지없이 그렇게 묻는다. 나는 개인적으로 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고 사업도 해보았다. 내가 그런 직업에 종사한다고 할 때는 내게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어떤 직업이나 일하기가 즐거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가 있듯이 번역도 예외가 아니다. 그야말로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쉽게 번역할 때가 있는 반면에 한 단어를 놓고 끙끙 앓을 때가 있다. 그런데 유독 번역가에게 “고생 많지?”라고 묻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관점에서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극단적으로 다른 두 대답이 가능하다. 하나는 글쓰기의 어려움에 대한 경외감이다. 언젠가부터 글쓰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란 의식이 팽배하다. 이것도 논술 바람의 탓이라 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하여튼 번역도 일종의 글쓰기다. 외국어를 우리말로 단순히 옮겨 놓는 작업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대부분의 독자는 누구도 번역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내 친구도 대학 교수로 글과 가까운 직업을 갖고 있지만 독자다. 그래서 내게 고생 많겠다고 물었을 것이다. 작년에 출판계의 큰 화제가 된 대리번역의 문제도 이런 부분을 노렸을지 모르겠다. 와, 얼굴만 예쁜 줄 알았는데 번역까지 한단다! 순진한 독자들은 그렇게 속았다.

다른 하나는 번역가가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슬픈 현실이다. 번역가는 이른바 프리랜서다. 언젠가 프리랜서를 우리말로 ‘일용잡급 노동자’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었다. 번역가가 잡급 노동자라면 친구가 고생 많겠다고 안쓰럽게 물은 것도 이해가 된다. 그런데 왜 잡급 노동자일까? 번역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대학 교수도 하고 사회적으로 꽤나 이름을 얻은 사람도 번역을 한다. 대부분이 버젓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다. 번역은 원래 직업 이외에 짬이 날 때 하



● 이 글을 쓴 강주현은 언어학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프랑스 브장송 대학에서 수학했다. 한국외국어대와 건국대 등에서 강의. 현재는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노엄 촘스키를 비롯한 언어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했으며 역서로는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선물》 《나의 프로방스》 《계으른 산책자》 등 100여 권이 있다.

는 것이다. 본 직업이 따로 있으니 번역은 잡일이다. 따라서 번역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은 그런 잡일을 본 직업으로 하니 잡급이다. 그럼 왜 노동자일까? 벽돌공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된다. 벽돌공이 벽돌을 쌓지 않고 판짓을 하면 벽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번역가가 번역에 열중하지 않고 한눈을 팔면 원고지는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번역가는 노동자고, 잡급 노동자다.

번역가로서의 철학과 성찰 없는 현실

그래도 나는 이런 노동이 너무 좋다. 좋다 못해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이런 노동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작년 대리번역 문제로 시끄러울 때, 한 대학 교수는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번역은 누가 해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기에 번역의 ‘번’ 자도 모르는 사람이 번역자로 이름을 올렸을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이 진단이 맞다면 독자는 번역에 경외감을 갖는데, 오히려 번역을 소중히 생각해야 할 출판사와 번역가-물론 일부라고 믿지만-가 번역이란 노동을 가볍게 보는 꼴이다. 안타깝기도 하지만 화가 난다.

2~3년 전의 신문을 보면 21세기의 유망 직업으로 번역은 빠지지 않았다. 여기에 출판 번역을 다루는 회사까지 등장했다. 게다가 번역사 시험이란 것도 있다. 그런 번역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도 있다. 번역에 관련된 인터넷 카페를 보면 회원이 넘친다. 번역에 관심 있는 사람이 그 만큼 많다는 뜻이다. 그러나 학원의 커리큘럼이나 카페의 글을 읽어보면 번역의 기술에 관한 말, 번역가로서 책에 이름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푸념이 대부분이다. 번역이 노동으로서 갖는 가치, 번역가로서 가져야 할 철학에 대한 깊은 성찰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번역은 전문 영역이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번역해야 한다는 뜻에서 전문 영역이란 뜻이 아니다. 번역 자체가 전문 분야다. 번역에 대한 성찰이라 해서 대단한 것은 아니다. 왜 나는 번역하는가? 이런 물음을 스스로 가지면 된다. 여기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 대답한다면 번역이 아닌 다른 일을 하는 편이 낫다. 물론 어떤 전문 분야와 마찬가지로 번역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다. 자본주의가 아무리 심화되어도 돈이 목적일 수는 없다.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다. 노동의 대가일 뿐이다. 그 대가가 목적일 수는 없다. 이 둘을 혼돈하면서 대리번역을 주저하지 않는다.

번역의 가치는 독자가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출판사가 지켜주는 것도 아니다. 순전히 번역가의 몫이다. 왜 나는 번역하는가? 이런 고민이 없을 때, 지금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도 나는 그 친구에게 “고생 많지?”라는 질문을 또 받을 것이다. 그때까지도 번역이 하나의 직업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테니까. 왜 나는 번역하는가? 번역가라면 이렇게 고민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래야 기술적인 면을 떠나서 “어떻게 번역할까?”라는 문제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